



MUSICAL

# 자갈치



2002년 1월 12일 (토) ~ 13일 (일) 3시, 7시 (2회 공연) 부산문화회관 대강당

주 최 :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주 후 원 : 부산광역시, 문화관광부

주 관 :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문 의 : (051) 531-8348, 645-3759

협 찬 : CM·K 주식회사 씨엠케이 KYOBO 교보생명

NOBLESSE CLUB

www.FINDAK.co.kr  
벼룩시장

참진이슬루

H2 promotion

# MU

## 지신을 뵈으면서.....



작가

이 현대

2002FIFA월드컵 개최도시 문화행사”의 하나인 뮤지컬 “자갈치”공연을 축하합니다. 특히 2002년의 벽두에 자갈치 공연을 가지는 것은 어떤 큰 의미가 있겠죠? 아마 그것은 성공적인 월드컵을 위해서 지신을 뵈아달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알리는 팡파레, 아니면 프롤로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큰의미를 가진 행사의 작품으로 본인의 희곡인 “자갈치”가 선정되어 공연되어지니 작가로서는 이 이상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대는 소우주입니다.

무대는 온갖 우주의 질서가 재현되는 곳입니다. 해와 달이 뜨고, 비와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홍수도 나고 아기가 태어나고 아버지의 노동도 있고 할머니의 죽음도 있고 누나의 결혼도 있고 형님의 출세도 있고 이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현상이 무대에 형상화되는 것입니다. 이 자갈치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삶이 녹아 흐르는 크게 보면 또 하나의 우주 질서가 재현되는 그리고 작게 보면 부산의 명물 자갈치의 현장을 그리는 인간세상의 축소판이 아닐까요?

제가 지금까지 연극활동을 해오면서 가장 부럽게 여기고 희망해온 것이 야구나 축구 경기장 같이 5만명 이상이 환호하며 감동하는 흥미진진한 작품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 큰 무대가 있는 극장이 없다면 바로 축구경기장에서 무대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의 전초전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자갈치” 작품입니다. 저는 언젠가 꼭 꿈꾸고 있는 희곡을 써서 축구장에 포욱 올릴것입니다. 어떤분은 말할 것입니다. “2002 FIFA 월드컵이 자네가 꿈꾸는 무대가 아니냐고 그럴수도 있겠죠? 파아란 비단의 잔디, 그 위에 펼쳐지는 선수들의 거친 호흡, 몸에 얼룩진 땀, 근육과 근육의 부딪힘, 끝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성의 결과, 수만명 관객의 환호 등등 경기장에서는 인간세상의 축소판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 욕심은 연극공연도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글을 쓰다 보니 옆으로 살짝 비켜난 것 같군요, 저의 꿈을 애교로 봐주십시오, 어째든 “자갈치”는 인간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역척같은 자갈치 아줌마들의 희노애락과 그 이면에 꿈틀거리는 독버섯들의 음모가 춤과 노래로 녹여져서 부산시민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며 가슴을 뜨겁게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욱이 이 작품은 대전엑스포기념 공연으로 그리고 부산시립극단 기념공연으로 공연된 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씩 드라마트루그를 하여서 작품의 진면목을 색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젊은 부산연극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출 박성진님, 드라마트루그의 정봉석님, 그리고 몇몇을 제외한 연기자와 스태프들도 젊은 연극 후배들입니다. 기대가 큼니다. 작품의 완성도도 높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작품이 선정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부산시 관계자 여러분과 부산 연극협회 지부장 권철님에게 감사사를 드립니다.

2001년 12월 30일

# 나는 '연극쟁이' 이며 예술가이다



연출  
.....  
박성진

있고 있었다. 연출의 글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작품을 만들고 있을때마다 항상 마지막 즈음에 뒤통수를 때린다. 이것저것 복잡해 죽을 지경인데 연출의 글이라니 .....

누군가 미리 이야기를 던진다. 너무 비관적으로 쓰지 말고 월드컵 문화축하공연이니 '품위있게' 쓰라고 하지만 연출의 글이 어떻게 비관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 작품 끝나고 난 뒤에 쓴다면 몰라도 .....

연습을 하다 젊은 배우 하나가 코뼈가 부러졌다. 쏟아지는 피를 틀어막으며 병원으로 갔다. 연습은 계속 진행되고 병원으로 갔던 그가 응급처치만 하고 돌아왔다. 코가 비뚤어졌다. 괜찮다고 말하는 그의 얼굴 상처 주위로 파리한 살떨림이 일고 있다. 고통과 미안함이 범벅이다. 또 춤을 추겠단다. 오늘은 쉬고 내일 수술 받자고 하니 '짤릴' 걱정을 한다. 그러면서도 연신 죄송하단다.

'니가 왜 미안해 하나, 이 자숙아. 내가 더 미안한데 .....

"내일보자"

'제기랄 연습장 문제만 시원하게 해결되었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걸 하필이면 좁은 연습장에서 연습하다 이렇게 되었다'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연극판은. '춥고 배고프다'는 것이 연극판의 숙명처럼 여겨진다

그럴 수밖에, 산업적 가치로 따지자면 연극판은 정리대상 0순위의 부실 덩어리다. 과다한 생산비에 말도 안되는 수익성, 적자의 산실, 최악의 근로 조건에 노동력 착취, 게다가 특하면 집단행동이다.

그러나 연극을 (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을) 산업적 가치로 평가하는 요즈음의 세태는 사뭇 불만스럽고 우려스럽다. 물질적으로 절대빈곤의 상태에서도 무언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삶을 던지는 그 가치를 산업적 가치 위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월드컵을 백번 치루더라도 결코 성숙하지 못할 것이다.

연극을 잘 만들어야 한다. 피를 쏟은 너를 위해, 땀을 쏟은 우리들을 위해, 사람들이 연극을 가치 있는 것으로 느낄수 있도록 하기 위해 .....

그리고 하고 싶은 모든 말들이 연극을 통해 드러날 수 있게

나는 '연극쟁이' 이며 예술가이다



음악감독

이 연 기

창작뮤지컬!

이번 뮤지컬 자갈치는 내가 지금까지 맡아왔던 것 중에서 가장 힘든 작업이었지 않았나 싶다

전체적인 음악의 구성이나 화성 체계가 어려운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준비 할 수 있는 기간이 턱없이 부족했었다. 대본의 구성에서부터 작곡과 편곡에 이르기 까지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창작 뮤지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악한 연습실 상황과 자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과의 사투를 열정으로 매우며 작업에 임했다.

아직까지 우리는 브로드웨이의 뮤지컬을 답습하고 있는 수준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화성적 색채, 우리의 소리, 우리의 리듬을 현대감각에 맞춰서 정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그림기만 하다. 이번 공연은 뮤지컬로서 비교적 짧은 준비기간이었지만 우리들의 삶 깊숙한 곳의 이야기와 느낌을 음악적으로 담으려고 노력했다. 충분한 만족은 어렵겠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금번 공연을 통해서 나타나라 확신한다. 또한 앞으로 거듭될 공연을 통해 보다 나은 작품으로의 발전은 물론 이고 명실공히 부산 뮤지컬의 대표적 작품이 될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이번 공연에 열정적으로 참여한 배우들과 스태프들께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들의 열정이 앞으로 우리부산의 뮤지컬에 초석이 되리라 굳게 믿는다. 특히 주연 배우님들과 부산연극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연극협회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끝으로 한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클래식 성악이나 실용음악하는 사람들이 이런 뮤지컬 작업에 보다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뮤지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안 무

강 희 정

연말과 새해를 작업 속에서 묻혀 보낸지가 여려해 꽤다. 올해는 "자갈치" 식구들과 함께였다

'Happy New Year' 그리고 '자갈치 파이팅' 을 외치면서 .....

한국의 부산 특유의 창작 뮤지컬인 자갈치는 참으로 걸쭉하다. 주책스럽고 투박한 입심하며 거칠고 단순해 보이지만 사람냄새 물씬나는 깊은 무대를 뮤지컬이라는 무대 예술형태로 이미지화 시키는 안무는 쉽지 않았다

아직 경험이 없는 코러스에서 부터 경력이 상당한 배우들이 어우러져, 함께 거의 다른 작업의 두배는 족히 넘는 안무로 연습량을 이뤄내었다.

잘 견디어 내주고 내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배우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번 공연에서 모든 해답을 얻고자하지는 않는다

단지 해답으로 향한 나의 올바른 질문이 계속되기를 바랄뿐이다.

부산연극협회 창립 10주년 기념공연

## 자갈치-영원한 우리의 삶의 고향



작곡, 동아대학교 음악학부 교수

박철홍

내게 있어 자갈치는 유년기의 놀이터였다. 당시 나의 부모님은 남포동에서 식당을 운영 하셨다. 당장 살아가기가 바쁜 우리네 부모님들이 따로 마련된 놀이터를 제공해 줄 수 없던 시절이었기에 자갈치 선창은 언제나 우리 코흘리개들의 쉼터며 놀이터였다. 영도대동조선 앞을 왔다 갔다하는 통통배의 무단 승선자로, 마음씨 좋은 고래고기 장사 아줌마의 선심을 기다려 때가 저린 손가락으로 고기 한점 얻어먹으며 뛰어 놀던 내 기억속의 고향이다

『자갈치』는 여러 번 공연되었다. 처음엔 시작을 알리는 노래 한 곡만을 가지고 출발하여 대전엑스포의 「부산의 날」 기념 공연으로 이어지며 몇 곡이 더 첨가 되었다. 그리고 부산시립극단 의 창단을 기념하는 뜻깊은 공연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반쯤 뮤지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이제 또다시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하는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거듭 부활을 하며 재구성되는 기회를 맞고 있다. 시립극단의 창단 공연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대본은 적극적으로 새롭게 각색되었고 다시 쓰여진 글에 맞추어 곡도 다시 쓰여졌다. 그러나 무언가 아쉬움으로 가슴속은 답답하다. 새롭게 글을 고쳐 썼지만 뮤지컬이라고 부르기에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다. 재 각색 완료의 시점이 11월 중순이었고 공연은 1월 12일, 13일로 확정되어 있었다. 새로 나온 글에 곡은 언제 완성하고 배우들은 또 얼마를 연습하고 공연에 임할 것인가?

이러한 고질적인 아쉬움은 역시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는 막을 올려야만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번 공연을 거치며 발견된 미완성의 부분을 다듬고 고쳐 5월에 본 공연으로 다시 올려진다는 기회가 있다는 점이다

이번 작품은 분명히 젊다. 젊은 연출가의 팔팔뛰는 맥박을 느낄수 있다. 배우들도 젊다. 때문지 않은 싱그러움을 호호할 수 있다. 아직도 완전히 뮤지컬답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한 숙제는 반드시 풀릴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우리의 젊은 배우들의 노력을 나는 높이 평가하고 싶다. 거기에 적절하게 안배된 중견 배우들로 인해 무게 중심은 어느쪽으로도 기울지 않는다.

기획과 진행을 맡아 고생하고 있는 연극협회의 모든 식구들에게 감사한다. 또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는 부산시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 M U CAST



장선장 / 유상홀



경준엄마 / 오화정



백사 / 이정허



양사장 / 호 민

# A



육쟁이할매 / 이진희



점쟁이 / 어주선



윤과부 / 구민주



호재 / 황창기

# 가



시장상인 / 김동석



가네자와 / 이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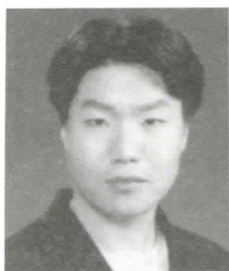


순덕네 / 김은미



제주댁 / 문지연

# 지



커피행상 / 김형석



경준 / 김준영



함흥택 / 김민정



기장택 / 조성아



하동택 / 문성미



남해택 / 황선주



거제택 / 김민아



순천택 / 서경화



갑이 / 김진혁



망치 / 김종만



짱깨이 / 윤진항



도라이바 / 이성진



시장상인 / 김태현



시장상인 / 양효윤



경매인 / 이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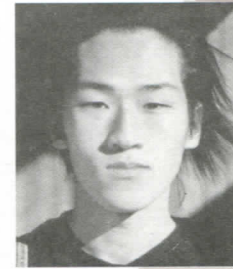
소중매인 / 김경선



소중매인 / 정애경



소중매인 / 정혜민



용역직원 / 조정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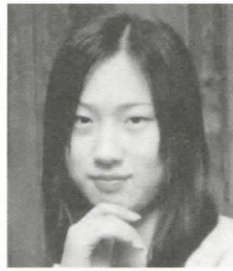
용역직원 / 박용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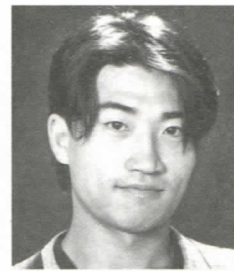
용역직원 / 조원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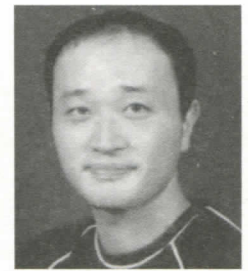
행인 / 박용환



행인 / 장서정



행인 / 양지웅



행인 / 방성욱



행인 / 최아름



행인 / 신경희



행인 / 조혜경



행인 / 김경선



행인 / 신정원



행인 / 김현숙



풍물패 - 해미르 / 이선구



풍물패 - 해미르 정재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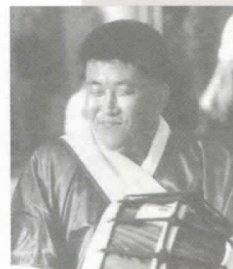
풍물패 - 해미르 이규형



풍물패 - 해미르 김유선



풍물패 - 해미르 임병엽



풍물패 - 해미르 임형석



특별출연-김사 / 권 철



# 작품 줄거리

## <전막>

- 1장-- 부산 자갈치시장 공사장에서 남편을 잃고 7살 난 아들을 두고 있는 인천댁 경준엄마가 모진 고초를 겪고 옥쟁이 할매의 도움으로 자갈치시장에 자리를 잡는다.
- 2장-- 옥쟁이 할매의 양아들인 장선장은 경준엄마를 흠모하고 경준엄마도 마음이 동한다. 한편 자갈치 실세인 백사는 양씨의 수상적인 움직임에 긴장하고 그 돌파구로 원양어선 사업을 준비한다.
- 3장-- 몇개월 후 공판장에서 양씨와 백사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윤과부를 앞세운 양씨의 간계로 백사는 상인들에게 신망을 잃기 시작한다.
- 4장-- 양씨는 자갈치를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 태풍이 몰아치는 날 백사의 상선들을 침몰시키고 폭력배를 동원해 장선장을 제거하려고 한다. 백사는 모든 재산을 잃고 장선장은 자신을 제거하려던 폭력배를 죽이고 살인죄로 감옥에 가게 된다.

## <후막>

- 5장-- 10년 후 장선장이 출소하나 자갈치는 이미 양사장이 상권을 장악하고, 상인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백사는 술주정뱅이에 걸인이 되어 자갈치 바닥을 떠돌고 있고 경준엄마는 양사장의 도움으로 살며 상인들로 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고 있다.
- 6장-- 장선장이 자갈치에 온 이후로 상인들은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는다. 이에 불안을 느낀 양씨는 그의 배후인 가네자와와 함께 다시 한번 음모를 꾸민다.
- 7장-- 성장한 경준은 엄마에게 반감을 가지고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려다니다 노점에서 엄마와 맞닥뜨리게 되고 양씨의 흉계를 알아낸 엄마의 말을 무시하다 양씨의 하수인에게 잡혀 둘은 창고에 갇히게 된다. 백사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
- 8장-- 양씨의 하수인인 호재는 창고와 노점에 불을 지르고 상인들은 분노에 차서 양씨에게 물려간다. 이때 가네자와가 모습을 드러내고 양씨를 죽이고 상인들을 위협한다
- 9장-- 불속에서 경준과 경준엄마를 구해낸 백사의 장례가 치뤄지고 상인들은 백사의 마지막 유언을 받들어 장선장과 경준엄마의 결혼을 약속하며 자갈치의 밝은 앞날을 기약하며 풍악을 올린다.

# STAFF



제작감독 / 권철



기획 / 김세일



기획 / 이지영



연출 / 박성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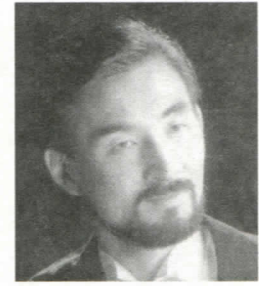
작 / 이현대



드라마투르그 / 정봉석



무대감독 / 곽종필



음악감독 / 이연기



작곡 / 박철홍



안무 / 강희정



안무지도 / 이금화



성악지도 / 전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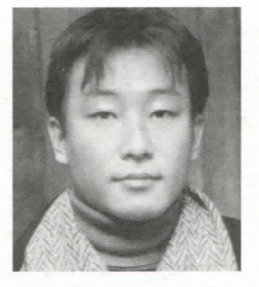
무대미술감독 / 김인권



무대기술감독, 조연출 / 심문섭



조연출 / 구혜진



조명디자인 / 윤준호



분장 / 손서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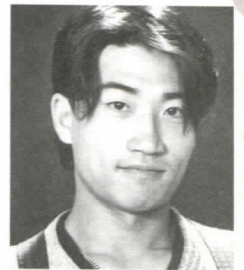
분장 / 박은주



의상 / 김은엽



의상 / 최유라



소품 / 양지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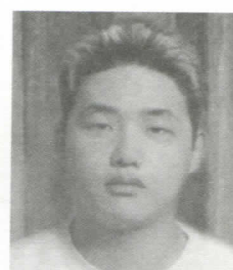
무대미술및포스터 / 강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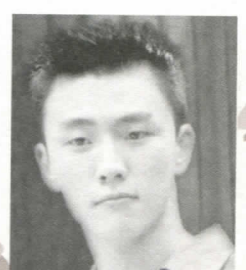
무대미술 / 김태훈



무대제작 / 장승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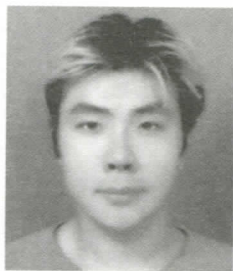
무대제작팀-기루 / 최원석



무대제작팀-기루 / 박종훈



무대제작팀-기루 / 하미향



무대진행/신봉석



음향기술 / 정철민



음향 / 김재식



음향 / 이루다



스틸촬영 / 김미희



밴드-기타 / 김종대



진행 / 김혜주



진행 / 정성아

**밴드**  
 드럼 윤혁성  
 베이스 장범용  
 피아노 나진주  
 키보드 이현영

**해피하트분장팀**  
 김인영 박진아  
 윤경미 이수진  
 박진숙

# 무대 스케치

1막



2막



그림 / 강현정, 김태훈

# 치야치야 자갈치야

작곡 박철홍

Cm Ab Cm Ab

치야 치야 치야 치야 치야 치야 치야 치야

Cm Eb Cm

치야 치야 치야치야 치야

Fm Ab Cm Fm Ab Cm Ab

치야치야자갈치야 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

Cm Cm Ab

아 - - 여루야 자갈치로다 삶 의 고 뇌 인 생 무 상

Fm G7

어 쩌고 저 쩌고 어 쩌고저 쩌고어 쩌고저 쩌고 귀 신 쩌 나 락 까 먹 는 소 리

Ab Bb

하 는 사 람 들 부 산 자 갈 치 에 꼭 한 번 돌 러 보 이 소

G7 C G7 C

에 사 는 게 무 엇 인 지 계 닭 계

G7 C C G7

될 겠 니 다 이 곳 온 삼 의 련 장 부 산 의 명 물 자 갈

C Ab G

치 오 이 소 보 이 소 오 이 소 보 이 소 오 이 소 보 이 소 오 이 소 보 이 소 오 이 소 보 이 소

Ab G7 Cm

오 이 소 보 이 소 오 이 소 보 이 소 오 이 소 보 이 소 오 이 소 보 이 소 오 이 소 보 이 소

오 이 소 보 이 소 사 이 소 야!



안녕하세요

HYJU 부부

